

# ○ 日 本 ○ 及 (日本) 原 法 講 座)



회장 고 상 기(高相基)

한국봉뇨보건연구회  
국제봉뇨보건학술연구회 부회장

## 제 4절 아민류(Amin)류

### (1) 히스타민(histamine)

일찍이 1935년 일본학자인 나가미쓰 군이찌로 (永光軍一郎)는 봉독 중에 히스타민(histamine)이 있음을 발견했다. 문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봉독 중의 히스타민(histamine)의 함량은 0.1%~1.5%로 일정하지 않다. 오웬(M. D. Owen)등은 1974년 봉독 중의 히스타민(histamine)의 농도가 일령(日齡)과 유관하다고 증명했다. 이노우에 히데오(井上秀雄)는 1984년, 일벌의 독 낭의 히스타민(histamine)의 함량은 다음과 같다고 발표했다. 일벌이 잣 출방했을 때의 함량은 아주 적지만 일령 14~15일되면  $1.4 \mu\text{g} \pm 0.5 \mu\text{g}$ 이 되고, 일령 21~22일 때  $1.0 \mu\text{g} \pm 0.7 \mu\text{g}$  까지 내려가며, 일령 28~29일이 되면  $2.1 \mu\text{g} \pm 0.4 \mu\text{g}$  까지 올라가고, 35~36일이 되면  $1.5 \mu\text{g} \pm 0.4 \mu\text{g}$ 로 내려간다.

### (2) 카테콜라민(catecholamine)

도파민(DA)은 노에프네프린(NA)의 전구물질로서 일벌의 독액 중의 DA함량은 먼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가 일령이 14~15일이 되면  $0.8 \mu\text{g} \pm 0.5 \mu\text{g}$ 이 된다. NA는 점차 증가하여 일령이 21~22일이 되면  $0.4 \mu\text{g} \pm 0.3 \mu\text{g}$ 이 되었다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후 일령이 35~36일이 되면  $0.5 \mu\text{g} \pm 0.2 \mu\text{g}$ 이 된다. 꿀벌 독액 중의 카테콜라민(catecholamine)의 함량은 일령과 유관할 뿐 아니라 계절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, 오웬(M. D. Owen) 등은 1982년에 8월 중순의 일벌의 독액 중의 아민(amine)함량이 가장 높고 DA함량은  $4.3 \mu\text{g} \pm 1.1 \mu\text{g}$ 에 달한다고 발표했다. 꿀벌 독액 중의 5-HT의 함량은 가장 적어 나나니벌

의 독액 중의 함량보다 현저하게 낮다.

폴란드의 그르쯔키(S. Grzycki)는 조직화학기술(組織化學技術)을 이용하여 꿀벌의 독침기관(毒針器官)의 산성 샘의 상피세포와 선강(腺腔) 내에 5-HT가 함유되어 있다고 증명했다. 히스타민(histamine)과 카테콜라민(catecholamine)의 분자구조식은 그림 6에 표시된 바와 같다.

### (3) 기타 아민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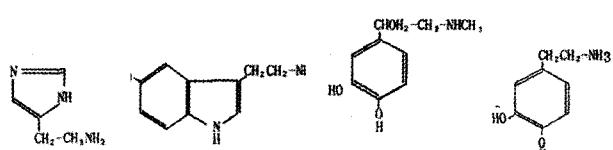
봉독의 주요 독성작용은 폴리펩티드와 효소로부터 생기는데, 그 가운데 생물암모니아류의 물질은 봉침으로 인한 동통과 광련이 있다.. 이노우에 히데오(井上秀雄)는 꿀벌의 독 낭으로부터 퓨트레신(putrescin)을 추출해 냈는데, 함량은  $0.54 \mu\text{g} \pm 0.2 \mu\text{g}$ 이었고, 또한 미량의 스퍼미딘(spermidine)과 스퍼민(spermine)도 추출해 내었다. 이들의 분자식은 다음과 같다.

퓨트레신(putrescin)  $\text{H}_2\text{N}-(\text{C}_2\text{H})_4-\text{NH}_2$

스퍼미딘(spermidine)  $\text{H}_2\text{N}-(\text{C}_2\text{H})_4-\text{NH}-(\text{CH}_2)_3-\text{NH}_2$

스퍼민(spermine)  $\text{H}_2\text{N}-(\text{CH}_2)_3-\text{NH}-(\text{CH}_2)_4-\text{NH}-(\text{CH}_2)_3-\text{NH}_2$

그림 6 히스타민(histamine)과 카테콜라민(catecholamine)의 구조식



A. 히스타민      B. 5-HT      C. 노에피네프린      D. 도파민

## 5. 기타 유기물

봉독 중에는 콜린, 글리세린, 인산, 개미산, 지방산, 지질 류, 탄수화합물과 19종의 유리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. 또한 봉독에는 2종류의 상대분자질량이 비교적 높은 변응원(變應原) B, C가 추출되는데, 이들의 상대분자질량은 각각 49,000~200,000과 105,000이다.

1962년 버치 등은 서양꿀벌의 경보행위와 관련된 화학물질이 주로 이소아밀 아세테이트(isoamyl acetate)라고 확정지었다. 일벌들이 일령12~3일이 되면 벌들의 독침기관(毒針器官) 중에는 경보작용을 일으키는 기타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, 스펙트럼 분석 결과 이들 화학물질들은 여러 복잡한 화합물이 혼합된 것임이 밝혀졌다. (표 5 참조)

표 5 일벌의 독침기관(毒針器官)에서 추출된 알카리 휘발성 성분

화합물의 종류	백분율 함량(%)
n-butyl acetate	1±0.3
isoamyl acetate	27±6.2
isoamyl alcohol	12±3.7
n-hexyl acetate	3±0.7
x1(acetate)	9±2.8
n-caprylic acetate	14±4.1
nonyl alcohol-2	9±3.2
x2(acetate)	6±2.1
n-capric acetate	1±0.5
benzyl acetate	13±4.5
benzyl alcohol	3±1.1

## 제 3장 봉독의 생물학적 작용

봉독의 화학성분은 매우 복잡하며, 이로 인해 매우 광범위한 생물학적 작용을 한다. 봉독의 생물학적 작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깊이가 얕아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. 다음 표 6에는 봉독 성분의 특정한 생물학적 효능이 나열되어 있는데, 이 몇 종류의 활성성분들은 멜리틴(melittin)을 그 주요성분으로 한다.

표 6 봉독성분의 생물학적 효능

효능	멜리틴 (melittin)	아파민 (apamin)	MCD-펩티드	후명질 산화효소	PLA2	히스티민 (histamine)
죽주신경계통에 대한 영향	+	+	0	0	+	0
신경-근육전도에 대한 영향	++	0	0	0	+	0
혈액순환에 대한 영향	++	0	0	0	+	0
피부운동작용	+	0	0	0	0	0
간경유혈작용	++	0	0	0	++	0
표면활성	0	0	0	0	0	0
세포막분비	++	0	++	0	0	0
히스티민(histamine)	++	0	++	0	+	0
박음	++	0	++	0	+	0
혈액순환에 대한 영향	++	0	+	0	+	++
도세혈관부과설 증가	++	+	++	+	+	++
뇌하수체(후분)-부신 계통	+	+	+	0	0	0
수영작용	+	+	++	0	0	0
개인화학식	+	0	0	++	+	0
폐흡입에 대한 영향	++	0	0	0	+	++
국부통증에 대한 영향	++	0	0	0	0	++
LDS(생명력 복강주사)*	4	4	40	0	75	>192

注: \*의 단위는 mg/kg, ☆는 비대세포에 대한 작용만을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.

## 제 1절 봉독의 신경특성(神經特性)

① ①봉독은 일종의 신경독(神經毒)이다. 전체 봉독과 그 구성성분--멜리틴(melittin), 아파민(apamin), 터치아핀(tertiapin) 등은 현저한 친 신경특성을 지니고 있다. 봉독의 중추성 항 콜린 기능 활성화와 신경절 억제작용은 아주 오래 된 특성으로서 생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꿀벌의 선조들은 독침을 통한 봉독의 신경독성을 통해 절지동물과 그 유충들을 마비시켰다.

### 1. 니코틴형 콜린 수용체에 대한 차단작용(遮斷作用)

전체 봉독과 멜리틴(melittin)은 니코틴형 콜린 수용체에 대한 선택적인 차단작용이 있는데, 이는 봉독이 뇌의 고급부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. 1971년 올로브(B. N. Orlov) 교수는 제 23차 국제양봉회의에서 ‘봉독의 중추성 콜린 억제기능’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봉독이 쥐의 니코틴형 경련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춘다고 주장했는데, 이는 봉독이 콜린반응계통을 억제한다는 것으로서, 즉 봉독이 구조적으로 원발성의 병리적 흥분작용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 과도한 자극전달을 저지한다는 것이다.

실험에서 증명된 바로는, 생쥐의 피하에 100mg/kg의 니코틴을 주사했을 때 100%의 쥐들이 특수한 경련발작을 일으켰는데, 먼저 이를 쥐에 2mg/kg의 봉독이나 멜리틴(melittin)을 주사한 결과 니코틴형 경련의 발생률이 각각 25%, 30%까지 떨어졌다. 먼저 집토끼에게 0.75mg/kg의 봉독을 주사할 경우 그 니코틴형 경련의 발생률이 80%에서 38.4%까지 떨어졌다. 게다가 잠복기가 연장되었고(14.6s±1.1s로부터 21.4s±3.9s로 연장), 경련지속시간도 단축되었다(180.0s±23.8s로부터 110.0s±16.8s로 단축). 봉독은 쥐와 집토끼의 니코틴형 경련의 발생을 막을 수 있거나 그 강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. 분명히 봉독은 항 경련작용과 중추성 니코틴 민감 계통의 억제작용에 있어 그 관계가 매우 깊은 것임을 알 수 있다.

- 다음호에 계속 -